

<2024년 5월 12일 주일말씀>

1.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2. 보라, 새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본 문 :

<요한복음 4장 25-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46-49>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 “1.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 2. 보라, 새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입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는 어떤 자일까요?

〈구약역사의 말씀〉을 풀지 못해도,
 〈신약역사〉를 몰라도,
 〈성경〉을 풀지를 못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사명자를 믿고 그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잘 푼다 할지라도
 이 시대 하나님, 성령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사명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알아도 구시대에 살기에
 새 시대에서 얻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 『요한복음 4장 6-42절』 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일순간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고,
 그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여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눈치채고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최고로 먼저 메시아를 아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풀 줄 모르고,
아무런 신앙의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물어보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메시아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머리가 천재입니다.

◇ 지금 사람들은 이 시대 문제를 다 풀어 주었어도 모르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이 시대의 원시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다 가르쳐 주고 증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좇아도 모르는 자들은

정말로 지해도, 지식도 없는 자들입니다.

◇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고,

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 주관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서

고정관념이 없으니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가 좋았습니다.

혹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그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한다.’ 고
 말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부담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며 말씀했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율법을 좇는 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 버립니다.
 여론화시켜 모두 소문나게 하여 불신하게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의식되어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사마리아 땅에는 일순간 복음의 불이 붙어 번져 나갔습니다.

(요4:39-42)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
 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
 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
 주신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 구시대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살아오던 교리의 장벽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구시대의 그 교리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와서
 그것을 벗어던지고 새 시대로 오기가 힘듭니다.
 구약시대 율법이나 신약시대 기독교의 그릇된 문자적 교리에
 빠져 살던 자들은
 새 시대 말씀을 들어도 외면하고, 불신하고, 이단시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기성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전에 자기들이 믿고 살던
 이방 종교 신앙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기는 했지만
 족속마다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족속의 풍속에 따른 신앙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술, 우상 숭배 등 미신적 신앙들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따라야 온전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산에서 제사를 지내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구시대 율법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는
 고정관념이 덜했습니다.

이 시대도 기독교인 역시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문자적 그 교리들은 거기에 속한 교리들입니다.

◎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성령이 말하노라.

<새 시대>에는

새 사람들, 종교 없이 사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훨씬 빨리 ‘새 시대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른다.

새 시대에는

기성보다 <새 사람들>이 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다.

고로, 이방을 파악하고 복음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 예수님 때도

‘사도 바울’이 구시대 율법 주관권에서 왔고,

그 외에는 거의 99%가 이방 주관권에서 새 시대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취급을 받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나,
혹은 아예 유대인에게서 천대와 탄압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99% 전해져 왔습니다.

이 시대도 ‘기독교 2세대’이 오고,

‘이방인들’이 와서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교리보다는 현재의 중심인물만 보고 따릅니다.

구시대 기성들은 교리를 가르치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앙 자체에 특별한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도 이방인들은 교리를 중시하기보다

예수님만 메시아로 보고 좇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특별한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몇 가지를 풀어 주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하셨습니다.

◇ 사마리아 여인은

교리를 안 가르쳐도 절대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잘 섬겨
신약역사의 큰 기둥,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아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인물들은
99%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약역사의 기둥이 되는 최초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시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창대케 된다.
기성에서 오는 자들은
교리로 따져 보고, 풀리면 따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에서 온 자들을 보면,
그중에는 기성의 근성을 못 버리고 따라오다
다시 돌아간 자들이 많다.

이는 비유컨대,
마치 전남편과 이혼하고 와서 살다가
옛 남편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간 격이다.
근본 된 토지를 갈려 간 자들이다.
혹은, 이미 버리고 온 땅 주인에게 돌아간 격이다.

그러므로 다시 하인의 몸이 된다.

일부는 다시 돌아가도, 쫓겨나서 살아가기도 한다.

버렸던 자에게 다시 가니 “또 왔나?” 하고 그를 빙박한다.

기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는 새 역사에 와도

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안 맞으면 떠나간다.

지난날 은혜를 싹 버리고 매몰차게 간다.

그때는 화가 나서 가지만, 본정신으로 돌아오면

‘왜 그랬지?’ 생각한다.

그러나 한 번 떠난 자는 새 역사에 다시 오기가 너무도 어렵다.

나 하나님이 보낸 자와 뜻이 있는 한 곳을 쫓다가 떠나갔으니,

지구 세상에 이 같은 곳이 또 있겠냐.

결국 지구 세상 천국을 떠나

별 볼 일 없는 별 세계로 호기심에 간 격이다.

거기서 살아감이 어떠하겠느냐.

꺾어 보면, 그제야 뼈가 저리고 마음속 깊이 후회하게 된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나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역사는 이미 끝났다.

나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는 여기를 떠나면,

옛날에 싫어서 떠나왔던 그곳,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움막살이하러 다시 가야 한다.

논두렁길을 다니고, 험산의 비탈길을 다니며

원시인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

새 역사 때는 넓은 길을 차 타고 다니지 않느냐.

그러나 새 역사를 떠나면

새 역사의 나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가 주는 것,
 시대 보낸 자가 주는 것은 모두 다 끊어지고,
 옛날 토지를 갈러 간 삶이다.” 하셨습니다.

◇ 근본 된 토지를 갈러 가면

<영적 곤고함, 육적 곤고함>이
 겨울철 칼바람이 매일 불어오듯 하고,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하고
 수고의 대가를 땅이 삼키고
 열매가 쥐엄 열매와 같습니다.

곧, 『 누가복음 15장 14-17절 』 처럼 집을 떠난 탕자의 삶입니다.

(눅 15:14-17)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와 같이 섭리사를 떠나가게 되면

신앙도, 하늘이 해 주던 일도 모두 자기가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 땅에 와서 농사지으니

열매가 열면 익지도 않은 때부터 각종 새들이 와서 먹어 없애고,

야수들까지 와서 쭉대밭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려 괴이한 눈으로 늘 쳐다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입니다.

하늘의 품을 떠나가면 누구나 그러합니다.

시대를 쫓아가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구원자에게 구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고,

각종 해(害)를 받지 않게 지켜 주시고,
같이 뜻을 펴십니다.

그리하여 천 년 동안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서
육신 일생, 영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 ◇ 섭리사를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다 다시 온 자들이
모두 겪고 와서 이같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에는 해와 달같이도 빛나게 살던 자들이
섭리사를 떠났다 돌아와서는
은하수같이 멀리 떨어져서 희미한 호롱불같이 삽니다.

- ◎ 선생이 10대, 20대 때
예수님이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시대 기성에서나 이방에서나 나름대로 왕 살아 먹다
늦게 새 시대에 온 자들은
시간을 다 보내고 와서
좋은 과일나무 묘목을 줘도
자기가 심고 키워서 열매를 보고 따 먹을 시간이 없구나.”
하셨습니다.

- ◇ 사람은 한 시대에 한 번 뛰는데,
구시대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오면
아무리 새 시대를 만나도 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깨닫고 와야 됩니다.
늦게 오는 자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로, “새 시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 선생의 부모, 형제도

구시대에서 뛰고 기성 교회와 그 체제에 빠져 사니
거기에서 인생의 좋은 때를 다 보내고
새 시대에 늦게 왔습니다.

새 시대 혜택을 깨달아 보기만 했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오래 못 살았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일찍 따른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새 시대 혜택을 같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 사람은 구시대, 아니면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이 펴부어 역사하시고,
<구시대>는 해가 지니 그늘 신앙입니다.

구시대는 고정관념 때문에 거기에 뿌리박고 삽니다.
산속에 사는 소나무처럼
쭙쭙하고 외롭게 잡초에 묻혀 삽니다.
그러나 월명동으로 옮긴 소나무는
월명동 하나님 궁에서 빛나게 삽니다.

새 시대는 완전히 새것들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아무리 와도
새 역사의 희망은 때가 되면 이뤄집니다.
고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 어떤 것은 선생이 섭리사 초창기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상대가 책임을 못 해 깨진 것을 아쉬워하며
 다시 끝까지 해 오니,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어
 이때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고로, 평생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는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선생도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이다.
 모두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 가다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펴야 되니
 또 사람을 보내어 정녕코 행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따르다 결국 떠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개체로 사는 자,
 <참포도나무>를 접붙이지 못한 자,
 <돌포도나무> 같은 자는 떠나갑니다.
 그 열매는 주인이 없어 새들이 취합니다.

◎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성령이 말한다.
구시대 역사는 끝난 세계의 역사다.
그 교리를 몰라도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만 따라가면, 그가 큰 자다.
 구시대에서 온 자도 ‘구시대는 해가 졌다.’ 라며 한마디 한다.
 새 시대를 따라가면 그것이 최고다.

<구시대 역사의 열차>는 ‘구시대 레일’ 까지다.
 <새 시대 역사의 새 열차>는 ‘새 레일’ 이다.
 방향을 틀어서 간다.

새 시대 새 사람들, 새것이 그 얼마나 좋으나.
 구시대에서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다 죽고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렸다.
 그런데 새 시대에 태어났어도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새 역사에 참여를 못 했다.
 새 시대 역사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희망이 이뤄진다.
새 시대 개척이다. 개발이다. 그래야 새것을 얻는다.

(연속해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월명동>을 보아라.
 구시대 때 하나님은 같은 월명동 땅이라도
 때가 안 되어 새 역사를 행치 않으셨다.
 새 시대가 와야, 보낼 자를 보내고 새 땅을 주신다.
 그리고 새 사람들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할 일을 너희와 다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 쉽게 나타나시겠느냐.

새 시대에 보낸 자가 있으니, 그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시는데
 그 주권권에서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쫓아낸다.
 새 역사를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만 같이 행한다.” 하셨습니다.

- ◇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 새롭게 하시므로,
 구시대가 끝나면 새 시대 역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어제는 구시대, 오늘은 새 시대,
 작년은 구시대, 올해는 새 시대입니다.
 새롭게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 ◇ 새 도시를 건설할 때,
 새 도시를 싫어하는 자는 다 나가게 하고
 새 도시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땅에 새 건물을 짓고
 같이 역사를 펴 갑니다.
 하나님도 성약 역사를 그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새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이 지나면, 모두 새 역사로 바뀌서 합니다.

옛것은 다 쓰고 오래돼서 고장도 잘 나고, 쓰기에 불편합니다.
 새것은 편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새것으로 하면 빨리하게 되고, 옛것은 빨리 못 합니다.

- ◇ <월명동>에도 선생이 클 때 있던 ‘옛 나무’ 들은
 옛 시대 사람들이 이미 다 베어다 쓰고
 때 되어 다 사라졌습니다.
 그 후 새 시대 사람들이
 어린 술들을, 새것들을 퇴비하고 키웠습니다.

월명동에는 옛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옛 나무는 한 그루도 남김없이 베어다 쓸 곳에 쓰고,
 다시 난 새것들입니다.
 새것들이 커서 벌써 거목이 되었습니다.

- ◇ 선생은 옛집에 살 때, 방이 좁아서 형제끼리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성 교회도 좁아서 늘 불편했습니다.
 새것인 십리사는 넓어서 늘 잔치하였습니다.

교회도 옛것인 <석막교회>는 늘 좁아서 무릎 꿇고 살았지만,
 새것인 월명동 <3.16관>은 새로 지어서
 의자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천 년사 혼인 잔치를 하며 삽니다.

‘혼인 잔치’ 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그 보낸 자와 함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며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선생이 예수님과 같이 석막교회를 지어 주고 난 후,

노방전도 다니고 산(山)기도 다닐 때
석막교회에서 선생을 이단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월명동에 큰 교회 지어 주마. 걱정 마.”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결국 <3.16관>을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3.16관>은 ‘신부관’입니다.

◇ 기성 신약 세계에서 벗어나

이제 성약시대 새 역사가 이같이 이뤄졌는데도

‘천 년 역사’가 아니라 합니까.

섭리사는 말씀도 이같이 기성보다 더 이상적으로 들으며
<새 역사 혼인 잔치>를 해 왔습니다.

<말씀>을 ‘잔치 음식’으로 삼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혼인 잔치 역사를 해 왔습니다.

◇ 지난날 기성 세계, 석막교회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안 좋게 말들을 해도

선생은 끝까지 행했습니다.

‘때 되면 모두 알고 놀라리라.’ 했습니다.

결국 참고 견디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해 주셔서

천 년 역사가 되게 했습니다.

◇ 지난날에 하고도 <실감을 못 하는 자들>은

왜 실감을 못 할까요?

- 멀리해서입니다.
- 구경꾼으로 있어서입니다.
- 신앙을 못 맞춰서입니다.
- 예의 없이 행하여 쫓겨나서입니다.

지금도 순종치 않는 자들을 보면

실감하지 못하고 겨우 따라만 오는 자도 있습니다.

◇ <이 시대 우리의 금식>은 신앙을 뺏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잘 이루려 함입니다.

시대를 쫓다가 영적 전쟁 중에 사망으로 간 자들,

사탄에게 뺏긴 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다시 뺏으려 금식해야 됩니다.

사탄과 악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선생이 옛날에 <70일 금식>할 때,

성령님이

“큰 조건을 세워라. 새 역사를 받고 행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듯이,

선생도 십리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같은 타향 땅에서 7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피골상절되어, 그 기간에 영계를 가장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십 번을 혼수상태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났다 했습니다.
 영의 세상에서 거의 살면서, 성경의 의문을 풀고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기도였기에
 성령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잡아 주셔서 안 죽고 산 것입니다.

◎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 주신 절대신 하나님] 책을 쓸 때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알아라.
 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렸다고, 네게 증거하러 나타났다.
 영계 거울을 통해 보여 주어 증거하게 했다.
 네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이다.
 증거자도 보아야 더욱 증거가 되니
 글 타자 치는 자를 통해 보인 것이다.
 너에 대한 증거를 내가 하기보다
 너에 관해 증거하는 자가 보고 써야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로, 그에게 보였다.
 그로 하여금 증거하며 구체적으로 쓰게 했다.
 합당하게 나 하나님이 행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면, 네게 속한 자들을
 ‘영계 망원경’ 으로 보고, ‘영계 거울’ 로 보고
 그들을 통해 각종의 것을 보아라.

너는 직접 영의 귀로 들어라.
 너는 듣고, 보는 것은 보는 자 통해 보아라.
 듣는 자는 듣는 것이 사명이고,
 보는 자는 보는 것이 사명이다.
 서로 하나 되게 함이다.
 서로 하나 되어 말씀 잔치다.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영계 망원경’을 가진 자다.
 <영의 귀로 듣는 자>는 ‘영계 무전기’를 가진 자다.
 하늘 천국까지 통하여라.
 의심하는 자들은 영파로 파악하여라.
 섭리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영계 영들과 각종의 것을 보는 자도 있으니
 서로 하나 되어 전하여라. 그래야 능력이 나간다.” 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 오늘은

“1.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2. 보라, 새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시대 사명자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자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끝까지 새 시대 새 역사를 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서로 돕고 챙겨 주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평강을 빕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